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목사 노트

김성국

『이야기 하나』

이 집사님께서 주신 정성 담긴 야채, 텃밭에 조금 키웠다며 아내에게 주셨습니다. 비닐봉투안에 담긴 파릇함이 새벽의 수줍음처럼 투명합니다. 거기에 올 해 심은 고추나무에서 처음 열린 것이라며 풋고추 3개가 따로 들어있었다는 아내의 말입니다. 이 집사님 남편께서 그 열린 풋고추 따서 먹자고 할 때 ‘처음 열린 첫 열매 먹을 사람 따로 있다’ 고 하셨습니다. 누구냐는 남편의 말에 “목사님”이라는 대답 한 마디, 남편도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동의한 그 고추 3개의 얘기를 듣는 순간 코끝은 찡해지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목사가 뭐길래…….

『이야기 둘』

토요일 저녁, 설교준비는 제 꼬리 물으려 댐도는 동네 강아지처럼 풀리지 않고, Hall에서는 청년들의 토요집회가 사뭇 경건스럽습니다. 식빵위에 구워진 소시지를 콜라 한 잔과 함께 정반에 받쳐 들고 한 청년이 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청년부 집회 시간 중에 갖는 간식 시간이랍니다. 자기들 허기 채우기 전 목사부터 생각해 준 젊은이들의 마음, 도대체 목사가 뭐길래…….

『이야기 셋』

오늘 심방도 아내를 제외하면 심방대원중 그래도 내가 제일 젊은 나이입니다. 모두 인생의 아름다운 주름과 흰머리를 은은하게 새겨놓은 자태들입니다. 예배 마치고 커피, 생강차, 인삼차를 골고루 주문 받을 때 커피에 생강과 인삼을 넣어 먹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했지만 좀 점잖아야 할 것 같아 오랜만에 생강차를 주문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에게 찾잔이 옵니다. 나이, 능력, 인생의 경륜등 모두가 목사보다 훨씬 앞선 분들 앞을 지나 내게 온 찾잔. 장유유서를 지키자고 내 그렇게 말했건만……. 젊은 목사에게 먼저 가는 찾잔을 전해 주시던 지긋한 교우들의 손길들, 도대체 목사가 뭐길래…….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9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2월27일
☎369- 5077/525-3858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몰디브 섬



『꿈같은 천국으로 가는 가장 꿈같은 방법』

싱가폴 항공사가 몰디브 섬을 배경으로 한 광고 카피입니다.

하얀 모래로 에워싸인 1200여개의 섬. 그 섬들을 둘러싼 산호초, 에메랄드빛 바다와 깊고 푸른 인도양 물색의 그림 같은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광고사진에는 보석처럼 일렁이는 물결위에 아름다운 연인 한쌍이 칵테일을 마시며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곳이 바로 작년 말 쓰나미로 인해 온통 폐허로 돌변했던 몰디브 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섬 몰디브, 어느 한 순간 끔찍한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때 한 순간 지옥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행복이 아닌, 영원한 평안과 행복이 있는 진짜 천국으로 가는 방법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은 변해도 천국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꿈같은 천국으로 가는 가장 꿈같은 방법”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은 성경에 있을 뿐입니다. -산소편지-



◀그뎨 그랬지▶ 국민체조  
“다같이 국민체조 시~작” 조금은 어설프면서도 약간 나이가 든 목소리의 음악에 맞춘 구령으로 대한민국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건체조’ ‘보건체조’ 라고 하던 것을 조금 후에는 “신세기체조” 로 그리고 “국민체조” 로 그 이름이 바뀌면서 동작도 몇 군데가 바뀌었죠. 군대에 가서는 “국군도수체조” 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건강보다는 열심히 앞만 향해 살아야 했던 시절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건강을 생각해 해주던 ‘국민체조’. 이제 비로소 그때 그 체조가 필요한 나이가 되었는데 정작 구령과 음악조차 기억 저편에 건너 있음에 애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 꼭 만나세요 ▶  
선하고  
겸손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은  
자주 만나세요

◀이런 사람, 꼭 피하세요 ▶  
나서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잘난척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하세요.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34장	다 같이
*성시교독 Response Reading	24(시 100)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주일학교 Sunday School		아동부
찬송 Hymn	442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정희자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15:21-28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은십자가 성가대 (2남여선교회)
설교 Sermon	『예수를 만난 사람들(6)』 “주여! 저를 도우소서”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440장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2,3월의 예배위원◆

일자	기도	헌금위원	주방	은십자가
27	정희자	권용일	7구역	2남여
6	지찬영	권정호	8구역	1남여
13	최재학	김경구	9구역	5,6구역
20	김교섭	김경숙	10구역	7,8구역
27	김순자	김경천	청년부	학생부

### ◆3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6	구역예배(11)
20	고난주간 자녀위한 특별새벽기도회(21-26)
27	부활주일. 당회 식사친교주일. 당회

### 2005년 교회생활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2. 전도하지 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처럼(교우사랑)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 수요일예배: 7:30 pm | 새벽기도회: 금 6:00 | 청년부: 토 저녁 4시

### 1. 교우소식

<등록> 박종화, 박숙영 집사(1선, 1구역), 혜옥, 현우, 정주은(母).

☎ 238-8132, 286 Gun Club Rd. Pukekohe

### 2. 2005년 부활절 봉헌 성경쓰기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범위> 마태복음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손으로 써 나갈 때 나를 둘러싼 어려운 일들 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기대할 것입니다.

### 3. 재정결산보고 제작회 <30일(수) 수요일예배 후>

\*2004년 한 해 동안 교회를 운영한 재정보고입니다.

### 4. 정기당회: 오늘 모임입니다

### 5. 오늘은 Silver Coin을 한달간 모아 드리는 이삭줍기 주일입니다.

\*태국, 필리핀, 한국의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보내집니다.

### 6. 교회요람 발간 <1가정 1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7. 교회 Home Page 가 3월 1일부터 바뀝니다 [www.calvary.org.nz](http://www.calvary.org.nz)

### 8. Tennis 모임 <3월 6일(주일)> <참가비: 1인 \$20>

\*15개 코트 모두를 사용합니다. 가족과 함께 나와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과 문의: 김삼영 집사, 박병민 집사

### 9. 주차협조를 바랍니다.

\*제작들께서는 교회 옆 “One Source.U-Bix” 주차장에 Parking 부탁드립니다.

교회 내 주차 혼잡은 본 교회가 우리교회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갖게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 ◀착한 시인▶

나물 캐는 처녀가 있기에 봄도 있다  
김남주

마을 앞에 개나리꽃 피고  
뒷동산에 배국새 우네  
허나 무엇하랴 꽃 피고 새만 울면  
산에 들에 나물 캐는 처녀가 없다면

시냇가에 아지랑이 피고  
보리밭에 종달새 우네  
허나 무엇하랴 산에 들에  
쟁기질에 낫질 하는 총각이 없다면

.....  
.....  
산에 들에 나물 캐는 처녀가 있기에  
산에 들에 쟁기질 하는 총각이 있기에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꽃 피고 새가 우는 봄도 있다네

도시의 삶이 움직이는 활동사진  
이라면 촌 동네의 사람살이는 수  
채화입니다.

봄의 꽃보다 얼굴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찌  
다 경쟁과 이익에 빠진 얼굴이기  
에 그림을 그려낼 수 없지만 자  
연도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아름  
다움을 발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잘 보존된 이  
곳, 이제 남은 것은 자연과 어울  
리는 몸짓으로 살아갈 우리의 준  
비된 마음입니다.